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7期(2026.07.03) WWW.MINGHUI.ORG

한글판 1061호 minghui.or.kr



▲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도심에서 대규모 연공과 집회, 퍼레이드를 열고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다.

주요내용

【해 외】 토론토로 돌아온 선원... 2026년 공연 성공적 마무리

【해 외】 파룬궁 이슈 관심 갖는 스웨덴 포럼

【평 론】 ‘잉여가치’ 고찰

【문 화】 중화문화가 어떻게 오독돼 ‘치세’를 위주로 변했는지 논함(1)

〈목차〉

■ 해외종합

토론토로 돌아온 선원... 2026년 공연 성공적 마무리	3
파룬궁 이슈 관심 갖는 스웨덴 포럼	6
美북서부 최대 딸기축제 퍼레이드 파룬궁 인기	7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9
구소련인, 두려움을 이기고 내면의 선한 본성을 깨닫다	13

■ 중국소식

푸저우시 창산구의 84세 파룬궁 수련생 왕슈친, 억울하게 투옥 및 고문당해... 가족 면회 금지	18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1
어느 중공 관리의 각성	24

■ 수련교류

질투심을 다시 인식하고 다시 제거하다	27
남편의 병이 나를 일깨워 안으로 찾게 하다	31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바로잡다	36
한 차례 태풍으로 깨달은 점	40
남의 지적을 듣기 싫어함과 책망	44

■ 시사평론

‘잉여가치’ 고찰	50
-----------------	----

■ 문화예술

중화문화가 어떻게 오독돼 ‘치세’를 위주로 변했는지 논함(1)	55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5일 저녁, 우여곡절 끝에 포시즌스 공연예술센터에서 만원사례를 이룬 선원뉴욕예술단의 첫 공연 모습

토론토로 돌아온 선원... 2026년 공연 성공적 마무리

[명혜지창] 2026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선원(神韻) 뉴욕예술단이 토론토로 돌아와 토론토 포시즌스 공연예술센터에서 4일간 5회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연일 만원사례를 이뤘고, 마지막 공연은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장 안이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올해 3월 선원은 허위 폭탄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 취소됐으나, 이번에 선원이 토론토로 돌아오면서 2026년 선원 월드투어 20주년 공연 시즌의 대미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캐나다의 여러 국회의원과 주의원들은 선원에 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표창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극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며 선원예술단을 지지하고 축하했다. 그들은 공연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극찬하며, 선원예술단이 이룬 성취와 예술가들이 폭탄 위협 및 각종 압력 속에서도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다.

댄 무이스 캐나다 국회의원: “무용은 절대적으로 놀랍고, 배경 스크린과 애니메이션의 융합도 매우 정성을 들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정말이지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공연입니다. 무대 위 시각적 표현, 아름다운 음악, 배경 스크린, 그리고 무용극이 보여주는 이야기 등 이 모든 것이 눈을 땔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역사에 관한 메시지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 아름다운 노래는 화룡점정처럼 이 신앙이 신으로부터 왔음을 밝혀줍니다.”

국회 국제무역상설위원회 위원장, 하원 연락위원회 위원장, 자유당 중진 의원인 주디 스그로: 특별히 보좌관을 극장으로 보내 선원에 표창을 수여하며, 선원 20주년 월드투어가 토론토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다. “이번 토론토 귀환 공연은 선원 20주년 월드투어의 중요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유, 문화적 표현, 그리고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예술 사업을 지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연을 관람한 안나 로버츠 캐나다 연방 국회의원: “선원의 이번 토론토 귀환은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합니다.” 로버츠 의원은 공연 관람 후 말했다. “선원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는 좋은 징조이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괴롭힘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공연을 처음 관람한 보수당 로런스 의원: “저는 공연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일이나 대중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며, 시야를 넓고 높게 가져 인내와 선(善), 인애를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원과 파룬따파 같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빛이 결국 어둠을 이길 것임을 보여줍니다.”

네드 쿠루크 보수당 국회의원: “제 부모님은 사회주의 배경을 가진 국가 출신이어서 저는 그런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기회를 주어, 그 시기의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가 소리 없이 스며들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3년 연속 선원을 관람한 안드레아 헤이즐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 의원: “공연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파룬따파 신앙인에 대한 박해) 진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우리도 줄곧 들어왔던 박해입니다.” “저는 선원 전체 팀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워왔다는 것을 알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공연 시즌 통계

선원 공식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토론토로 돌아가기 전 선원 예술단의 같은 규모의 8개 공연단이 2026년 공연 시즌에 5개월 이상에 걸쳐 전 세계 5대륙 20개국 172개 도시에서 약 740회에 걸쳐 공연을 펼쳤으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글로벌 전통 가치와 예술 부흥의 중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

습니다.

명혜망 원문 위치: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6/30/511847.html>

파룬궁 이슈 관심 갖는 스웨덴 포럼

[명혜지창] 2026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웨덴 정치축제가 고틀란드주 수도 비스비(Visb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파룬궁(法輪功) 의제는 정치인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이자 대중국 정책 국제 의회 연맹(IPAC) 회원인 데이비드 요셉손(David Josefsson): “여러분이 이곳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파룬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를 통해 상기되고 마음에 새겨져 중공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민연합당 지도자이자 대선 후보인 다니엘 소네손(Daniel Sonesson): “중국공산당 정권이 파룬궁을 위협한 것은 바로 그들도 파룬궁이 한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악랄하더라도, 파룬궁(학습자)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니마 골람 알리푸르(Nima Gholam Ali Pour): “이를 통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거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각 병원과 기관을 지도하여 이미 알려진 (생체 장기 적출) 학대 행위가 있는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여성 연구원: “허가 없이 인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알렉스(Alex): 자신이 있는 도시에 파룬궁의 연공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파룬궁은 전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스웨덴 간호사 제시카(Jessica): 박해 속에서도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념을 지키고, 진실하고, 선하며, 인내할 수 있는 가치관에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정치축제(Almedalen Week)는 스웨덴에서 매년 열리는 대규모 전통 관민 상호작용 행사입니다. 매년 여름, 스웨덴의 각 정당 의원과 정치인, 기업계 인사, 미디어, 비정부 기구 및 개인들이 중세 고대 도시인 비스비에 모여 현재 다양한 사회 의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토론회 및 정치 연설 등의 활동을 개최합니다. 주최 측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가을 스웨덴 총선으로 인해 약 10만 명의 방문자가 관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명혜망 원문 위치: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7/1/511872.html>

美북서부 최대 딸기축제 퍼레이드 파룬궁 인기

[명혜지창] 2026년 6월 6일 오후,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 중 하나인 제94회 마리스빌(Marysville) 딸기 축제 대행진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백여 개의 다채로운 팀이 주대로를 따라 활기차게 행진하여 많은 관중이 길가에 모여 환호했습니다.

올해 시애틀과 밴쿠버 수련생들로 구성된 파룬궁 팀이 다시 초청받아 참가했습니다. 팀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진선인(眞·善·忍)’ 현수막으로 길을 열었고, 이어서 공법을 시연하는 꽃수레와 활기찬 요고 대열이 펼쳐졌습니다. 이 평화롭고 화려한 팀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퍼레이드의 ‘베리스빌 상’(Berrysville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과 참여자의 사랑

·홍보대사 잔나 헤이스(Janna Hayes)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차라고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장소 조정을 맡은 베트남전 퇴역 군인 존(John)은 ‘진선인(Truth, Compassion, Tolerance)’이라는 글자를 보고 매우 좋아하며, 다른 팀원들에게 열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행사 진행자는 특히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파룬궁은 ‘진선인’에 따라 사람들의 심성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수련생들은 중국공산당의 27년간의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신념을 지켰고, 큰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시장 포상

행진 한 달여 전, 시장 존 네링은 포상을 수여하며 5월 13일을 시의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고, 대법홍전 34주년을 기념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혜망 원문 위치: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27/511746.html>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례행사인 리버티빌 도시 축제(Libertyville Days Festival)가 미국 시카고 북부 외곽 리버티빌 시내에서 열렸다. 축제는 많은 시민의 발길을 끌었고 현장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 파룬궁 부스는 평온하고 상서로운 에너지장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공법을 배웠다. 80세가 넘는 현지 주민 마이크 로치(Mike Roach)는 과거 영문 에포크타임스 보도를 통해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알게 됐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알게 된 후,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중공의 박해가 ‘지극히 사악하다’고 맹비난했으며 그 자리에서 즉시 S.4009호 법안 지지 청원서에 정중하게 서명했다.

2026년 미국 장기이식대회(American Transplant Congress, ATC 2026)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스턴 메니노 컨벤션 전시센터(Thomas M. Menino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열렸다. 6월 19일부터 보스턴 파룬궁수련자들은 회의장 밖 인도로 와서 진상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참석자들에게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기적출 만행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인 S.4009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유엔 ‘고문생존자 지원 국제의 날’ 즈음인 6월 27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도심에서 대규모 연공, 집회, 퍼레이드를

열고 사회를 향해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다. 인권변호사, 심장내과 전문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같은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인권 재난을 함께 제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공법 시연과 집회 발언으로 시작됐으며, 오후 1시에는 기세가 거대한 도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시민들은 잇따라 서명으로 지지하며, 수련자들이 다년간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박해를 반대해 온 것에 경의를 표했다.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부책임자 알레한드로 센투리온(Alejandro Centurion)은 회의장 밖에서 “더 많은 이식 분야 전문가들이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관련 증거를 진지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의학계는 윤리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케리 고어(Kerry Gore)가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고문은 인간의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기본 인권을 짓밟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난민 변호를 오랫동안 맡아온 그는 중공이 오랫동안 고문을 형사 사법 및 정치적 박해의 도구로 삼아 민주화 인사, 인권변호사, 가정교회 기독교인,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족 등 집단을 탄압해 공포를 조장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어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치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중국이 진정으로 고문을 종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각계각층이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 인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뉴질랜드 중국계 민주화 운동가 리팅(李挺)도 나서서 중공의 폭정을 고발했다. 그는 8살 때 수업 시간에 소년선봉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해 왼쪽 귀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회상했다. 리팅은 “단지 질문 하나를 던졌다는 이유로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이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표현하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며, 자신이 오늘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중국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 민주 법치를 갖춰 후대들이 두려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리팅은 여전히 고문과 박해를 겪고 있는 양심수들에게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인권과 자유를 함께 수호해 줄 것을 호소하며, 중공에 고문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1일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멜버른에서 연례 겨울 커뮤니티 축제인 스프링베일 윈터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렸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도 부스를 마련해 여러 민족 시민들과 함께 성황을 이뤘다. 가족 기업 대표 토마스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수련 원칙인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찬양했다. “저는 누구든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삶의 도덕적 기둥입니다. 전문가로서 업무 중에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련 후 건강을 유지해 더 오랜 세월 동안 일할 수 있고, 평소에 (‘진선인’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며 갈등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파룬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받으니까.” 이는 2026년 6월 19~21일 하지 축제 기간에 파룬궁수련자들이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박물관 앞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귀찮아하지 않고 반복해서 대답하고 거듭 설명한 주제다. 사람들은 진상을 들은 후

앞다투어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를 반대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경의와 지지를 표했다. 아울러 파룬궁의 ‘진선인’ 이념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파룬궁에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인 부부는 진상을 안 후 즉시 서명하며 ‘진선인’의 가치관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을 알리기를 견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용기와 끈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진선인’이라는 이 이념이 가정과 아이들에게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또 십 대 아이 셋을 곁으로 불러 진상을 알려주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진선인’을 믿는 좋은 사람들인데 중공은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잔혹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장기적출까지 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또 아이들에게 앞으로 온 가족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한다고 당부했다. 크고 중요한 시비 앞에서는 선악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6~7일, 튀르키예 파룬궁수련자들은 카디콰이(Kadıköy) 시정부가 개최한 환경 축제(Environment Festival)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 파룬따파 부스는 많은 사람의 짙은 흥미를 끌었고 많은 방문객이 다가와 공법을 배웠다. “공법을 배우고 연공하니 편안하고 자유로우며 몸과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동작 자체는 비록 매우 간단하지만 정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한 교사 멜레크 오르한(Melek Orhan)은 환경 축제에서 파룬따파를 연공한 후 상쾌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밝혔다. 오르한은 또 말했다. “저는 원래 매우 피곤했는데 나중에 마치 한숨 폭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연공할 것이며 파룬따파를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강 포털 사이트 잇웰(EatWell)은 영양 및 전인적 건강을 주제로 한 행사를 장기적으로 개최해 수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 파룬공수련자들은 잇월이 개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많은 건강 애호가와 교육 종사자가 현장에서 5장 공법을 체험했으며, 파룬따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알렉산더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구소련인, 두려움을 이기고 내면의 선한 본성을 깨닫다

[명혜지창] 알렉산더(Alex)는 구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사업가였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아홉 살 되던 해, 경찰이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와 어린 알렉산더를 향해 총을 겨누며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알렉산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다행히 아버지는 당시 집에 숨어 계셨고, 경찰은 그를 잡지 못해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았습니다.

그때는 구소련이 막 해체된 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생존을 위해 알렉산더의 가족은 급히 성을 넘어 2000km 이상을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강한 충격을 겪은 후,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지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한 만남, 타버린 전단 한 장

열일곱 살 되던 해, 알렉산더의 가족은 러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이사했습니다. 2년 후, 그는 군 복무를 시작하여 국경 경찰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우연히 바닥에 불에 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소개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전단에는 여전히 연락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전단을 읽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웬지 모르게 감동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중에 전단에 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휴가 때 예루살렘의 파룬궁 수련생을 찾았습니다.

처음 연공 동작을 배울 때, 알렉산더는 매우 익숙함을 느꼈고, 이미 이러한 동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극복

어린 시절 구소련에서의 경험은 알렉산더에게 항상 사람들의 감시와 검열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마치 눈이 뚫려 사람들

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를 침묵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의견과 견해를 발표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군대 환경에서 그는 당시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이끄는 병사들은 모두 젊고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순찰할 때 과수원을 지나가고 병사들이 굴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과수원에서 누군가가 정성껏 돌보고 관리하는 것을 보고 굴을 훔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말할까요, 말까요? 그도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병사들의 비웃음과 체면을 구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직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굴 한 알이라도, 만약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련을 하지 않았다면, 침묵을 지키고 수수방관했을 것입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수련 후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 쌓였던 두려움을 천천히 극복하고 걸어나왔습니다. 군 복무가 끝날 때까지, 군인들은 알렉산더가 자신들처럼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경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칭찬했습니다.

병사들의 환한 웃음

알렉산더의 군 생활이 끝나기 전에 그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시 정부는 성대한 행진을 열었고, 파룬궁 수련생들도 그중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노란색 파룬따파 티셔츠를 입고 풍선을 들고 행진 대열을 걸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가 이끄는 병사들이 행진 중 보안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했던 그는 “내가 믿는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은 군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했

습니다. 행진이 끝난 뒤 알렉산더의 군인들은 그에게 인사하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위대에게 돌을 맞았는데 오늘은 풍선을 들고 행진 대열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의 일상 업무는 쉽지 않았고, 군인들은 사건 후 알렉산더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수련에 대한 인정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찰들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법을 수련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의 ‘자신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나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기초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련 전에는 러시아 경찰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들도 공산주의 아래 병든 교육과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가족은 이미 이스라엘로 이사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부모가 예전처럼 여전히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으로 이스라엘 현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그들을 위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알렉산더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집주인을 의심하셨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집주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통의 다리로서 알렉산더는 양측의 중요한 균형점이자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는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며, 끊임없이

심성을 단련합니다.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한 쪽에 분노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만을 생각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고, 부모님도 만족하게 하며, 더는 다투지 않고 심지어 작은 다툼도 없게 합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모든 생각이 순수하고, 선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마디라도 잘못하면 부모님과 집주인이 법정에서 싸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저의 선의를 보았을 때, 양측 모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저는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는말

2004년부터 청년 알렉산더는 파룬다파 수련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련 덕분에 삶의 경험과 시련을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공산주의가 우리 안에 묻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대법은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두려움의 외피를 뚫고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제 선량한 본질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명혜망 원문 위치: <https://mhwindow.org/260701-9013/>

푸저우시 창산구의 84세 파룬궁 수련생 왕슈친, 억울하게 투옥 및 고문당해... 가족 면회 금지

[명회지창] 푸저우시 창산구에 거주하는 84세 파룬궁 수련생 왕슈친 씨는 2025년 7월 14일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루 밤낮으로 병원에 이송된 후, 결국 구금되어 2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월 20일 푸젠성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왕슈친 씨는 현재까지 가족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왕슈친 씨는 수감 중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검열된 흔적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편지에서 그녀의 납치 및 누명 씌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을 구실로 한 납치

왕슈친은 편지에서 그날 두이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선홍빙과 여러 명의 의사, 간호사가 “90세 남편의 혈압을 잴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왔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왕슈친을 강제로 끌고 가 옷과 신발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푸저우 제2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 외에도 국가안전부 요원과 경호원 등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왕슈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았는데,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한 국가안전부 요원이 왕슈친에게 “건강하다면 서약서를 쓰고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왕슈친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서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슈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슈친은 1998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9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골반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고 후 의사가 뼈를 교체하는 수술을 권했지만, 왕슈친은 수술을 거부했고, 가해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파룬궁 수련을 통해 점차 걷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90세로 휠체어에 의지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지만, 84세인 왕슈친은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안국과 간수소, 거듭된 입소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부는 그녀를 억지로 구금했다

2025년 7월 14일 밤, 창산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그녀를 진안구 공안국으로 데려갔지만, “고혈압과 고령”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했다. 이후 푸저우 제2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나, 역시 입소가 거부되었다. 다시 푸저우 제2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역시 입원이 거부되었다. 결국 그녀는 푸저우 제1 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7월 17일 저녁, 왕슈친은 푸저우 제2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이송 도중 경찰은 “창산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유서에서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자신을 납치한 후 집을 수색하고 파룬궁 서적과 노트를 ‘증거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현행법에 부합한다면) 이른바 ‘사건’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배경 및 진행 과정

왕슈친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되어 세

뇌 시설, 구금 시설, 감옥 등에 억류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왕슈친은 푸젠성 선전부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한 달 넘게 불법 구금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집이 수색당했습니다. 고혈압 증세로 ‘가택 감시’를 받았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14일, 왕슈친은 다시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창산구 공안국에 의해 정식으로 불법 체포되었고, 사건은 민칭현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소위 “변호인”을 선임했고, 가족들은 재판 전날에야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받았다.

2025년 10월 9일: 민칭현 법원은 화상 회의로 재판을 진행했고, 그녀는 구치소에서 원격으로 참여했다.

2025년 11월: 그녀는 불법적으로 2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이 항소했지만,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6년 1월 20일: 왕슈친은 푸젠성 여자교도소 제2구역 노인 수용동에 수감되었다. 입소 통지서에는 매달 16일에 가족 면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엄격한 관리 기간”을 이유로 면회를 거부하여 가족들의 법적 면회권을 박탈했다.

- 교도소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하이테크존 유난촌 신난대로 156번지 푸젠성 여자교도소
- 우편번호: 350000
- 전화번호: 0591-83663603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후베이성 우한시 신저우구의 63세 파룬궁수련자 후상슈(胡尚秀)가 2026년 6월 10일 오후 2시경 집에 무단 침입한 일당에게 납치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부당하게 심문을 받았다. 새벽 4시경 별로 장시간 서 있도록 하는 체벌을 받고 있던 후상슈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진 채 울부짖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거나 상태를 묻기 위해 다가가는 경찰은 없었다. 후상슈는 중간에 몸부림치며 한 차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쓰러진 뒤에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인원들은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상슈는 곧 사망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샹청구의 63세 파룬궁수련자 류푸진(劉富金)은 2025년 8월 21일 집에서 샹청구 우자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당일 하얼빈시 공안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아청구와 샹청구에서 30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류푸진은 불법적인 7년형을 선고받고 2026년 6월 18일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푸진은 초기에 다오리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중에 7년형으로 변경 선고됐다. 그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최종 판결문은 7년의 중형을 유지했다.

지린성 바이청시 다안시 파룬궁수련자 경지추(耿繼秋)는 2025년 6월 3일 농촌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어서 바이청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

당했다. 경지추는 현재 60세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박해 속에서 경지추는 다안시에서 납치 횟수가 가장 많고 불법 감금 기간이 가장 긴 파룬궁수련자이며 누적 불법 신고 형량이 16년 반에 달한다.

지난시 파룬궁수련자 위야어우(于杻歐), 리산산(李杉杉) 부부가 최근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위야어우는 1년 반, 리산산은 3년 반형이다. 리산산을 감시했던 사람에 따르면 그녀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심한 학대를 받았다. 한겨울에 모든 수감자에게 솜옷이 지급됐지만 유독 그녀에게만 주지 않았다. 그녀는 홑옷만 입고 차가운 바닥에 매일 십여 시간을 서 있어야 했고,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잘 때 그녀는 문 앞에 쫓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힘겹게 겨울을 버티고 4월까지 견디다가 감옥에 수감돼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야어우, 리산산 부부는 2025년 7월에 납치됐는데 원인은 ‘자료를 배포하다 CCTV에 찍혔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두 사람은 지난 구치소에 감금됐다.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파룬궁수련자 가오쥘쿠이(高作奎)는 후루다오시 련산구 공검법(공안·검찰·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3년 반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후루다오시 중급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현재 가오쥘쿠이의 가족은 그를 대신해 중급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가오쥘쿠이는 무죄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가오쥘쿠이는 올해 63세로, 2022년 3월 17일 저녁, 가오쥘쿠이가 쓰얼바오진에서 현지 민중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 자료를 나눠주다가 한 마을 주민의 악의적인 신고로 쓰얼바오진 파출소에 신고됐다. 당시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는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가 호적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구실 삼아 그를 ‘온라인 지명수배자’로 모함했다. 3년 반 뒤인 2025년 10월 22일, 경찰은 그의 직장에서 그를 납치했다.

랴오닝성 푸신시 파룬궁수련자 장야강(張亞剛)은 2026년 5월 26일 푸신시 푸명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이 부과됐다. 2025년 장야강은 자신의 서예 작품을 ‘콰이서우(快手)’ 플랫폼에 올렸다. 공안 기관은 그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그를 모함했다. 경찰은 먼저 그를 납치한 뒤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명목으로 2천 위안을 속여 빼앗았고 이후 사건을 검찰원에 송치했다.

상하이시 70대 파룬궁수련자 자오촨메이(趙傳美)는 3년 전 평센구 법원으로부터 1년 3개월의 부당한 선고를 받았다. 건강 상태가 수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원이 여러 차례 그녀를 수감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6년 6월 12일, 법원은 그녀에게 ‘감외집행(監外執行)’ 처분을 내렸다. 자오촨메이는 올해 73세로, 상하이시 푸둥신구 환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년간 그녀는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괴롭힘, 납치, 감금을 당했다.

최근 간쑤성 란저우시의 57세 파룬궁수련자 위안슈잉(袁秀英)이 2025년 10월 말 쓰촨성 쑤이닝시 다잉현 공안 직원들에게 성(省)을 넘나들며 란저우에서 납치됐고 이어 쑤이닝시 구치소에 감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파악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다잉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2년 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2023년 그녀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 다잉현으로 돌아갔고 본래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이었으나 현지 공안이 줄곧 은밀히 그녀를 미행했다.

어느 중공 관리의 각성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사법계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한 관리가 일찍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적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진상을 깨달은 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각성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가 1인칭으로 털어놓은 속마음이다.

저는 중국 체제 내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이 30여 년간 줄곧 사법계에서 일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총기도 소지했고, 어떤 일이든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으며, 간부들의 간섭이 매우 적어 일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이후, 우리의 일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압박도 컸습니다. 각급 간부들의 간섭도 많아졌으며, 많은 사건이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양심적으로 일하기’가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줄곧 양심을 지키며 일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동료들의 눈에는 별종이 되었고, 점차 간부들도 저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수동적으로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재판에 가담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줄곧 가책을 받았고, 그런 고통이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무수한 세뇌를 거치며 좋고 나쁨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심도 조금씩 무너져갔고, 양심을 잃어가는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때 살아남으려면 양심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여러 차례 제게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2024년에 이르러서야, 저는 일찍이 적극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가담했던 주변 동료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응보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사상투쟁 끝에 저는 체제 내 업무를 일찍 끝내기로 결심하고 핑계를 대고 떠났습니다. 체제를 떠난 후 저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을 새롭게 살펴보았고, 이른바 반당(反黨), 반사회주의라는 수련자들이 악당이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번 당시 제가 파룬궁수련자에게 한 짓을 떠올릴 때면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남들 눈에 번듯해 보이는 직업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런 평온함과 안도감은 제가 체제 내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저는 파룬궁을 지지할 것이며,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파룬궁 진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중공 체제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체제에 들어올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오랜 시간의 세뇌와 통제를 거치며 점차 당성(黨性)이 인간성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른바 업무라는 것도 악당의 도구에 불과하며, 악당에게 결의를 다지고 맹세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체제 내 관리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사생활이 문란하며, 가정이 불화하고, 몸이 안 좋은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진심으로 악당 체제가 하루빨리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제가 체제를 떠나 악당에서 탈퇴한 후 깨달은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중공 체제 내 직장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파룬궁 진상을 깨달은 예전 동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하루빨리 악당에서 탈퇴하고 전통으로 회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체와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파룬궁 창시자 리(李)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신을 되찾고, 사람으로 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투심을 다시 인식하고 다시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지금은 사람 마음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붙잡아 닦아내려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질투심은 여전히 때때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제거하지 못한 이 질투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철저히 인식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내성적인 성격으로 형성된 질투심

우리 법공부 팀에 A 수련생이 있습니다. 법공부 후 교류할 때면 자신의 법공부와 연공 상태를 나누곤 하는데, 어떨 때는 가부좌를 두 시간 견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류해 준 뒤에야 해낸 거잖아. 가부좌 시간도 내가 더 길지만 난 떠벌리지도 않는데.’ A는 또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여 틈을 내어 법을 읽고 외우는지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러면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일도 편하고 시간도 많으면서, 게다가 집에서 법공부하고 연공할 환경도 좋잖아. 나는 혼자 법공부하고 연공할 방조차 없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질투심이 나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 질투심을 적지 않게 닦아냈는데 왜 아직도 남은 질투하는 걸까요?

게다가 A가 단체 법공부 때 법을 읽고 외우는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보면,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엄격하셨기에 줄곧 순종적인 성격이었고 남과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기에 자신에게

쟁투심이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에 진지하게 한번 찾아봐야 했습니다.

수련생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련생이 교류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격이 외향적이기 때문이며, 교류할 때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수련을 잘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성미가 불같으셨고 어머니는 엄격하셨습니다. 예닐곱 살 무렵, 매일 아침 5~6시면 깨워서 밥을 짓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매섭게 꼬집으셨기에, 아무리 날이 춥고 얼어붙을 지경이어도 억지로 일어나 밥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집안일이 끝도 없어서 또래 친구들과 뛰어논 적이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아주 내성적이고 고립된 성격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때면 속으로 ‘왜 하늘은 나에게만 불공평할까’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아 선생님께 자주 칭찬을 받았고 반 간부도 맡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일을 조금만 시키고 공부가 먼저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늘 저를 부르러 와서 함께 등교하곤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기심도 생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질투심은 저의 내성적인 성격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질투심이 나타나면 무작정 닦아내려고만 주의했을 뿐, 제 성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부님께서 법에서 명백하게 말씀해주셨는데도 저는 법으로 가늠하지 않고 법으로 집착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제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수련생의 모습을 통해 법에서 제고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2. 절대 평균주의가 형성한 질투심

작년 어느 날, B 수련생과 함께 유리창을 닦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B가 유리를 닦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손동작이 아주 얇전했고 새끼손가락을 우아하게 든 채 느릿느릿 부드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것을 보고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요동을 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유리 닦는 게 뭐 저렇게 느리고 얇전하담. 평소 말할 때는 저렇게 얇전하지 않더니. 게다가 내가 일 하라고 불러서 돈도 주는데 저런 식으로 일을 해?!’ 이 생각이 나오자마자 ‘절대 평균주의’ 관념이 난동을 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사부님께서 저에게 절대 평균주의 관념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타난 걸 보니, 제가 이 문제에서 아직 제고하지 못하고 더 제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생각이 나오기만 하면 절대 평균주의가 될까요? 그것은 공산사령(共産邪靈)의 무신론이 제 사상 관념 속에 ‘평균’이라는 관념을 주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돈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평균’이 마음의 균형을 깨뜨려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근본을 파고들어 보면, 여전히 저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며, 무슨 일이든 손발이 빠르고 비교적 잘해낸다면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아는 하늘과 땅과 투쟁하는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오만방자한 사상으로서, 천지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잃은 채 자아를 부풀려 형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수련생이 유리를 닦는 그 얇전한 동작으로 인해 조급증, 이의심, 상대를 얽보는 마음

까지 함께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 모든 것 역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고 내 기준으로 가늠했을 뿐, 진정으로 대법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니, 원망, 명예욕, 금전욕, 과시심, 거만함, 독선, 질투, 남을 얕보는 마음, 분노, 억울함 등 수많은 사람 마음이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는 오히려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는[無私無我] 경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뒤로하는[先他後我] 경지로 수련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후천적인 자아를 반드시 수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3. 기점을 바로잡아 질투심을 제거하다

수련생들이 명혜망의 교류 문장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저도 듣고 싶었지만, 남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법공부와 정공을 하고, 오전에는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며, 오후에는 3시간가량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법공부와 동공을 합니다. 그래서 명혜망에는 아주 가끔 접속할 뿐이었습니다.

B 수련생이 일하면서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듣는 것을 보고, 저도 일터에서 들어볼까 생각했지만 안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느 국영 기업의 사무용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곳 직원이 3~4백 명에 달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추가 근무를 할 때, 사람이 적은 틈을 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듣기 시작하자마자 그 질투심이 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이 질투심이 또

나오는 거지? 네가 나와도 난 두렵지 않아. 나는 널 철저히 제거해 버릴 테니까. 네가 교류 문장을 못 듣게 하려나 본데, 이번엔 끝까지 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나를 일깨워 안으로 찾게 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남편은 올해 76세입니다. 마음씨가 선량하고 무슨 일이든 매우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기도 해서, 이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저는 적지 않게 고생했습니다. 특히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그는 중국 공산당(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저의 수련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의 매일 욱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저를 때리거나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년 전 남편은 사구체신염을 앓았는데 1년 가까이 치료받은 후 완치됐고, 이후 여러 차례 재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는 혈중 지질 수치가 약간 높은 것과 위결절 수술(코로나 백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큰 병이 없었습니다. 70여 세가 되어서도 거의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건강검진을 할 때 소변 검사에서 잠혈 3+가 나왔고 단백뇨도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재검사를 했지만 소변의 잠혈과 단백질 수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와 함께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자고 권했지만 끝내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

다. 그는 병이 났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IgA 신장병으로 의심되어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약물은 부작용이 매우 커서 약을 먹은 지 며칠 안 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신경이 흥분되어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손이 떨렸으며 얼굴도 부어올랐습니다. 병이 난 데다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자 남편의 불같은 성질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의 매일 화를 내며 제 숨을 잡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으며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법공부를 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남편은 거의 30년 동안 소변 검사가 계속 정상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상이 생겼을까? 내가 수련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가정환경도 본래 다 바로잡혔으며 이 십여 년간 남편도 화를 내지 않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게 되어 가정이 화목했는데, 지금 내 수련장 범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남편의 병이 재발하고 가정 갈등이 또 생기다니.’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장은 일체 바르지 않은(不正確)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는 마땅히 병이 없어야 한다. 병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바르지 않은 상태에 속하기에 그것은 이런 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전법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했는데 이런 장(에너지장)이 없단 말인가? 이런 제약 작용이 없단 말인가? 아니다. 분명 내 문제이고 내 어떤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다.’ 제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렸고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제 문

제였고 이는 그야말로 사람 마음이 ‘귀신을 문 앞으로 불러들인’ 격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환희심, 안일심, 그리고 자심생마(自心生魔)였습니다.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남편이 70여 세임에도 최근 몇 년간 거의 아무런 병 없이 무슨 일이든 다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우리집이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인테리어와 이사를 할 때 그는 안팎으로, 위아래로 뛰어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서 짐을 아래로 날랐고 때로는 연속으로 4~5번씩 오르내렸습니다(자녀들이 외지에 있어 도울 수 없었음). 저는 그저 정리만 했고 주로 남편이 짐을 날랐습니다. 저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게다가 지난 십여 년간 저에게도 아주 잘해주었고 화도 내지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며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 스스로도 조금 우쭐해져서 제가 수련을 꽤 잘해 가정환경도 바로잡혔고 남편도 좋아졌다고 여겼습니다. 수련생들이 우리집에 법공부하러 올 때도 남편은 무척 환영했고, 수련생들이 오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왜 안 왔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수련생들도 남편에게 감탄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에게 “지금 저 사람 모습을 보시지만 예전에는 나를 거의 죽일 만큼 괴롭혔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참음은 보통 사람이라면 해내지 못할 거라는 말이니, 그 의미는 곧 제가 수련을 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심생마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부님께서 수련 중에 주의해야 할 문제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저에게 어찌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자 구세력이나 마(魔)가 그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 건강하다고 기뻐했지? 내가 그에게 병

을 주겠다. 네가 스스로 수련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참을 수 있는지 보자. 내가 그를 시켜 아무 일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특하면 화를 내게 할 테니 네가 아직도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다. 네가 안일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지? 내가 그를 시켜 너에게 모든 면에서 나쁘게 굴게 할 테니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마는 정말이지 빈틈만 있으면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를 찾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부님 죄송합니다. 수련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했는데도 저에게 아직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뒤에서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 당신이 이번에 병을 얻은 것이 당신 자신의 업력 때문이라면 고통을 겪으며 갚으세요! 하지만 만약 내 마음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미안해요.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내가 수련을 잘하지 못했고 좋지 않은 마음이 마를 불러들여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입으로도 적지 않은 업을 짓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인정하니 부디 당신의 주원신(主元神)도 깨어나 스스로 자신을 주재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강력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 배후에서 그를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한다. 어떤 사악한 생명과 요소도 대법제자의 가족을 박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든 박해하면 그것이 곧 죄이니 즉시 해체하여 제거한다. 나는 대법제자이자 수련인이다. 나에게서 내 곁에 있는 바른 생명(대법제자의 가족)을 지킬 능력이 있다. 그들은 모두 대법 사부님의 가족이며 모두 대법이 구하는 생명이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과륜따과하오, 찢싼런하오’를 알고 있으며 악당 조직에서도 탈퇴했고 선량함을 지켰으니 어떤 생명도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동

시에 저는 또 한 가지 정념을 보냈습니다. ‘그의 양쪽 신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라.’

비록 저는 다른 공간의 무엇도 볼 수 없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공능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이러합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진정으로 수련하는 모든 대법제자를 보호해주시고, 대법제자 역시 곁에 있는 대법에 의해 제도된 모든 중생을 지켜야 하며, 어떤 사악한 생명이나 요소도 이미 제도된 생명을 조종하고 박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시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잠혈이 줄어들고 단백뇨가 사라져 소변 검사 결과가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그 후 십여 일이 지나는 동안 그의 감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요즈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아직 먹고 있습니다(이 약은 갑자기 끊을 수 없고 서서히 양을 줄여나가야만 끊을 수 있기 때문). 저는 남편의 병이 머지않아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꺼낸 것은 수련생들과 교류하기 위함입니다. 수련은 정말이지 엄숙하여 자신이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마에게 꼬투리를 잡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직접 박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가족을 박해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련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조차 대법을 떠나지 않도록 꼭 잡아야 하며, 사람의 모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곧 번거로움(시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번거로움은 전부 우리 자신의 업력과 사람 마음이 초래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저는 반드시 잘 수련해 나가겠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바로잡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청년 대법제자로, 현지의 일부 노년 수련생을 위해 교류 원고를 정리한 지 꽤 됐습니다. 제가 접한 원고 작성 수련생은 거의 모두 1999년 이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인데, 그들은 대체로 저에게 세 가지 특징을 느끼게 했습니다. 첫째는 인원수가 많고 이미 정체(整體)를 형성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매우 평온해 많은 수련생이 일 년 내내 거의 매일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원고 작성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원고 정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이 구술하면 녹음한 후 제가 돌아와서 정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작성된 수고를 제가 타이핑해 문장을 약간 다듬고 오타자를 수정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일이 있어 오늘 수련생들과 나누려 합니다.

한번은 제가 어느 수련생의 집으로 안내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십여 명의 노년 수련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는 분도 있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A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미리 한 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듣고서 놀랍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시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떤 글은 당신이 쓴 것이죠? 인터넷에 이미 발표됐는데 보셨나요?” A는 잠시 멍해지더니, 자신은 평소에 인터넷에 잘 접속하지 않아 보지 못했고, 볼 필요도 없으며 해야 할 일을 했으면 그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서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최소한 기뻐하며 언제 발표됐는지 등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한 번 들여다볼 흥미조차 느끼지 않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A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명혜망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며 제가 정리한 원고가 발표됐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발표되면 기뻐했고, 안 되면 다음에는 발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글의 글쓴이는 내가 아니고 난 그저 정리를 도와준 것뿐인데, 글쓴이 본인은 한 번 볼 흥미조차 없는 반면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으니, 이 차이가 정말 너무 크네요.”

저는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물었습니다. 발표되기를 바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명예욕, 공덕을 추구하는 마음,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었고, 또한 환희심, 과시심,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밥을 먹여주거나 옷을 입혀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왜 모두 이것을 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므로 나는 그것을 원해선 안 되며, 반드시 그것을 닦아 없애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또 한 명의 노년 수련생 B가 있었는데, 세 가지 일을 모두 매우 잘했고 특히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일에 대해 많은 수련생이 그녀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상을 잘 알릴 뿐만 아니라 글도 쓸 줄 알았고, 자주 체험 소감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 타이핑된 원고만 해도 열 편이 넘었는데, 비록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적극성에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B는 그저 글 쓰는 것을 수련의 길에서

의 단편적인 기록으로 여겼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그녀의 원고를 녹음해 주었는데 대략 40분 정도 녹음했습니다. 녹음이 완료된 후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제가 부주의로 그녀의 녹음 파일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가 매우 미안해하며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계속해서 다른 수련생들의 녹음을 진행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의 거듭된 요청에 힘입어 그녀는 그제야 다시 한번 녹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말하고 B가 보충하며 빠르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전 과정에서 B는 내내 웃는 모습이었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노년 수련생의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줬으며 저의 부족한 격차를 보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감이 교차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며칠 전 명혜망을 둘러보던 중 낫익은 글 한 편을 보게 돼 자세히 보니, C 수련생이 며칠 전 저에게 건네준 손으로 쓴 원고였습니다. 당시 보았을 때 저는 이 글이 다소 어수선하게 쓰였다고 느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썼기에 속으로 이렇게 써서는 정리할 방법도 없고 분명히 발표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도 보지 않고 빠르게 타이핑해서 곧바로 명혜망에 투고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과 집착을 품고 이 일을 대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투고한 지 대략 열흘도 안 돼 글이 발표됐습니다. 명혜망 수련생은 전체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 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타이핑할 때 냈던 오타자까지 수정해 줬습니다. 몹시 부끄러워진 저는

그제야 자신이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대하는 데 큰 누락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발표될 가망이 있다고 생각한 글은 진지하게 대하고, 발표될 가능성이 작다고 여긴 글은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분별심, 자아, 독선,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글이 어수선하게 쓰였다고 얕잡아 본 것은 질투심이었고, 교정도 보지 않고 빠르게 타이핑한 것에는 번거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일심,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토록 신성한 일을 하면서 이처럼 많은 더러운 사람 마음과 집착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당시 C의 원고를 녹음할 때가 기억납니다. 아마도 긴장한 탓인지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해 내지 못해 녹음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C는 다른 사람을 통해 쓴 원고를 제 손에 전해 줬습니다. 수련생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는 일찍이 아내에게 이런 노년 수련생들과 비교하면 내가 십만팔천 리나 뒤쳐져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수련생, 이토록 좋은 법이 있거늘, 수련생의 신뢰 앞에서 저는 왜 이처럼 태만했을까요? 사부님께서 안내해 주신 수련의 길 앞에서 저는 왜 이처럼 태만했을까요? 만약 이 글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경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일깨움에 감사드리고, 수련생들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태도를 바로 잡고, 더러운 사람 마음과 집착을 닦아 없애며, 자신을 바로잡고, 더욱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세 가지 일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허스(舍十)

한 차례 태풍으로 깨달은 점

글/ 광동성 대법제자 한우(瀚宇)

[명혜망] 수련 대열에서 뒤처졌다가 다시 수련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진상 알리는 방면에서 수련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해 무척 괴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법공부를 하는 한편 여러 차례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간혹 돌파구가 생기기도 했지만 작심삼일에 그쳤고,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연장해 주신 귀중한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변 수련생들도 여러 번 저를 일깨워주며 제가 안으로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비록 약간의 제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구세력의 그 넓은 톱니바퀴에 이용당한 것일까요? 한 차례 태풍이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래에 제가 안으로 찾으며 마음을 닦은 과정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2025년 9월 중순, 태풍 ‘라가사’가 여러 성(省)을 덮쳤습니다. 제가 있는 해안 도시에도 태풍 예보가 발령됐고 도시 전체가 ‘5정(五停, 5가지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꽤 침착했습니다. 속으로 ‘태풍 재해가 대법제자와 무슨 상관이람,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돼 퇴근하는 길에, 다음 날은 온 지역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태풍을 피해야 하니 오늘 마트는 분명 사람들로 붐비겠다

는 생각이 들자 결국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매대의 식품과 채소가 모조리 ‘씩쓸이’된 것을 보고, 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은 것을 보자 제 사람 마음은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다른 마트로 달려가 먹고 마실 생필품을 잔뜩 샀습니다(사실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라 그렇게 많이 쓸 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사재기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밀려오는 공포감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속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직 넉넉하게 준비해서 집에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안락하게 지낼 궁리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인이 대법제자가 재난에 직면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법을 실증하는 것은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스(SARS) 때 소금을 사재기하고 전염병 사태 때 식량을 비축하던 짓을 저는 했습니다. 정법시기가 오늘날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한 차례 태풍에 저는 또 덩달아 식품을 비축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진상을 채 듣지 못한 중생이 얼마나 많이 도태될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진상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집착,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저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사람 중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단체 법공부에 가야 했습니다. 이때 또 사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갈까 말까? 만약 법공부가 끝났을 때 태풍이 불어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온통 사람 마음

과 사람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출발점도 사람에 두었고 자신을 속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더 이상 사람의 생각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수련 형식이니, 반드시 사부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견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우산을 들고 법공부 장소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에 바짓가랑이가 반쯤 젖었지만, 마침내 저도 한번은 정념정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정진요지3-정법 중에서 정념을 갖고 사람 마음을 갖지 말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너무 중한 대법제자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신의 길이다. 그러나 일부 수련생들은 사람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 이전에 개인 수련 중에서 당신들은 늘 대법의 좋은 점을 인류사회의 좋은 점으로 여겨왔고, 마난(魔難) 속에서 당신들은 우주 중의 사악한 생명이 나쁜 사람을 이용한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인위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며”.

이 말씀은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미행과 감시 같은 환상을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박해로만 여겼을 뿐, 그것을 타파할 충분한 정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부님의 가족이자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길 충분한 자비와 선념이 없었기에,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중생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은 평소 사업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고객이 협력할 의향을 보일 때마다 곧바로 사람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즉시 온갖 방법과 조치, 심지어 수단까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견적을 내야 우리 측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주문을 따낼 수 있을지에 몰두했을 뿐, 고객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객이 다른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으며 심지어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자신을 안으로 찾으며 어떤 집착심이 건드려졌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타적인 입장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남이 잘되면 대신 기뻐해 주지는 못할망정 기를 쓰고 다른 업체의 서비스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자신보다 무엇이 못한지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질투심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도 10여 년간 협력해 온 단골 고객의 요구에 따라 우리 측에서 거듭 견적을 내며 협상을 벌인 끝에, 순조롭게 성사될 줄 알았던 거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고객이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고 성사된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수만 위안의 주문을 잃은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단련과 시련을 겪고 여러 번 부딪히고 엉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사부님의 위대한 불법(佛法)이 끊임없이 씻어주시고 가지(加持)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원망하거나 득실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거래는 누가 하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이 오자 사부님께서서는 자비롭게도 그것을 이용해 저의 근본적인 집착심을 쓸어내 주셨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런 집

착심을 모조리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진수(眞修)하고 실수(實修)하는 과정에서 제가 엄숙하게 대해야 하며, 집착심을 감히 직시하고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제 모든 생각과 일사일념(一思一念)을 다잡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간 동안 구우주를 부패하게 만든 구세력이 안배한 이기적인 본성을 간파하고 닦아 없애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에서 신(神)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기다림과 중생의 간절한 희망을 더 이상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쓰자니 제 두 눈에 이미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음번 태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부디 저 자신이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해 진실로 본질을 바꿔 사람에서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지적을 듣기 싫어함과 책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하기 전에 저는 이기적이고 고생을 견디지 못하며 어려움에 부딪히면 물러서고,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면서 남이 지적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제 수련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최근 한동안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체면을 차리는 마음을 어떻게 없앴는지 그 경험을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진상 자료를 만들고 A 수련생이 이를 전달했는데 우리 둘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할 때 졸고 멍한 상태였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돌파하지 못해 괴로워하다 보니 진상 자료를 만들 때 늘 실수를 했고 A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저를 지적하면 저는 반박하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는 제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보고 진상 자료 제작을 멈추고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조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지났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는 저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매일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녀는 제가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말투로 제 부족함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에게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더 견디지 못하고 또 물러서고 싶었으며, 이번에 집에 돌아가 자료를 만들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A는 마치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제가 떠나기 전에 “오늘 밤에 다시 와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 연공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그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을 보면 그녀는 여전히 직접 지적했고 심지어 다른 수련생들 앞에서도 저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마음도 매우 불편했지만 A가 저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기에 그녀의 엄격함은 제가 점차 지적받기 싫어하고 좋은 말만 좋아하며 체면을 차리는 등 사람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착실한 수련 상태에 들어서게 해줬습니다.

이 기간에 항목 팀의 한 기술 수련생이 납치돼 그녀가 담당하던 항목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저와 한 번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었지만 수련생들은 저를 떠올리고 저에게 이 항목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알았지만 많은 기술을 몰랐기에 거절했습니다. A는 “항상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위해 걸어 나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항목 팀으로 데려가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배우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면 또 물러서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는 마치 제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아를 버리고 중생을 마음에 두세요.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중생을 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을 알면 즉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미 철저히 내려놓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B 수련생이 우리집에 왔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두 눈이 몹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줄곧 그녀에게 명혜 라디오 내용이 담긴 칩을 가져가던 부부 수련생이 그녀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표정이 굳어 있고 말투도 통명스러워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서 눈이 충혈되고 몹시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으니 마음에 두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교류해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류하는 중에 그

녀가 줄곧 강조한 것은 남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B가 떠난 후 저는 ‘그녀는 지적받기도 싫어하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수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아 자신의 원인을 찾지 않고 오히려 B의 잘못만 봤습니다.

이틀이 지나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항목 팀에서 저와 다른 젊은 수련생에게 각자 이미지 파일을 하나씩 디자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수련생이 이미지 디자인을 저보다 잘해서 저는 의존심이 생겼고 게다가 다른 할 일도 있어서 저는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하는 당일 수련생들은 모두 젊은 수련생이 디자인을 잘했다고 칭찬했고 A도 제게 게으름을 피웠다고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파일을 열어보니 이미지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 파일로 추출해야만 편집해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수련생이 다섯 가지 다른 이미지로 디자인했기에 저는 하나씩 인쇄해서 A에게 고르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A가 보고 파일을 책상 위에 탁 던지며 “이런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꺼내놓고 나더러 고르라고 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평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모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왜 지금 와서 글자도 틀리고 색상도 틀리며 이미지조차 흐릿하고 다 안 좋다고 하는 거지?’ 저는 A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색상의 이미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흐릿해진 것은 제가 이미지를 추출할 때 생긴 문제지 원본 파일 문제나 젊은 수련생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A를 만났을 때 저는 제 문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두 가지 다른 색상의 이

미지에 대해 A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두 수련생 앞에서도 저를 지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사부님, 수련생이 저에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이어서 저는 앞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렸지만 제가 그들 곁으로 다가갔을 때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남이 한마디 하는 걸 못 참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저를 일깨워 줬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매 순간 제자의 수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못나서 또 사부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는 또 며칠 전 B의 일이 생각나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적할 때 속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그것을 책망이나 비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안으로 찾게 됩니다. ‘내게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좋은 말만 좋아하는 마음, 체면을 차리는 마음 등이 있는 게 아닐까?’ B의 일을 듣게 된 것은 사실 바로 제가 안으로 찾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었는데, 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을 아직 철저히 내려놓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류 글을 쓰면서 저는 지적받기 싫어하는 것에는 공산당 문화 요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당이 바로 자신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르다며 남들이 ‘아니요’라는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악당이 나쁘다고 하면 그를 탄압하는데 우리 수련인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말해도 괜찮다”를 해내야 합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로스앤젤레스시 법회 설법’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주의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누가 다시 남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가 바로 정진하지 않는 것이며, 누가 다시 남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는 바로 표현한 것이 수련인의 상태가 아닌데, 최소한 이 한 점에서 말이다. (박수) 누가 만일 이 하나의 고비를 더는 넘기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럼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련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가장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당신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원만을 향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속인이 대법제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되지 마라. 원만을 이루어야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부님의 이 단락 설법을 공부하며 저는 지적받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 마음을 철저히 없애서 앞으로의 길을 잘 걸어야 합니다.

깨달음에 한계가 있으니 선의로 교류하는 것이며, 수련생 여러분도 모두 주의해서 이 마음을 닦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잉여가치’ 고찰

글/ 린다스(林大勢)

[명혜망] 중국 본토의 몇 세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본가’는 부정적인 어휘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은 두 부분, 즉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나뉜다고 했다. 필요 노동은 자신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잉여 노동이 창조한 그 부분의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라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착취를 소멸하려면 자본가를 소멸해야 하고 자본가를 보호하는 자산계급 정권을 소멸해야 하므로 반드시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우선 ‘혁명’이라는 이 개념이 지극히 폭력적이고 피비린내가 난다는 점은 차치하고, 이 ‘잉여가치’ 이론을 자세히 분석해보자.

첫째, ‘필요 노동’이 차지하는 것은 ‘자본가’ 사유의 공장 건물, 설비와 도구, 원료와 부자재, 수도와 전기, 인적 및 물적 관리, 기술 교육, 건물 보험, 인력 보험 등 일련의 비용 투입이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이런 지출이 없다. 이에 반해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과 물건을 차지해 생산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중국공산당(중공)이 말하는 ‘업주’, 즉 ‘자본가’가 된다. 자금과 재산의 규모를 불문하고 혁명(소멸) 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잉여가치’는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윤’이다. 투입하면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 기업이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인데 누가 사업을 경영하겠는가? 차라리 돈과 설비를 직접 버리는 편이 낫다. 마르크스가 굳이 ‘이윤’을 ‘잉여가치’라고 부른 것은 고의로 인류의 정상적인 개념과 논리를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다. 손실이 날 때 이윤은 적자로 표시되며, 이는 즉 잉여가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이때 자본가는 자신의 돈을 꺼내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에 따르면 이때는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자본가가 ‘착취’라는 악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돈을 들여 노동자 대신 로봇을 산다면 역시 잉여가치(이윤)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자본가가 로봇의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로봇은 자본가가 산 도구 혹은 설비이니 이렇게 되면 또 자본가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것이 된다. 이 착취 이론은 아주 황당하지 않은가? 대립을 조장하고 증오를 조장할 뿐이다.

각도를 바꿔서 다 함께 생각해보자. 만약 한 명의 노동자나 농민이 ‘잉여가치’ 이론을 신봉한다면 그가 마음 편히 노동할 수 있겠는가? 만약 모든 노동자나 농민이 자신의 일이 상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증오와 폭력을 품는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끔찍하지 않은가?

그는 악을 선동하고 증오를 선동하며 폭력을 선동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가 이르는 곳은 반드시 전란과 기근이 뒤따랐다. 그러

니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반드시 빈곤하고 낙후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아주 부강하지 않냐고 말한다. 사실 중국의 부강은 마르크스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정반대로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한 결과다.

현재 중국의 GDP는 기본적으로 민영기업이 제공한다. 즉 사유제와 착취제도에서 발생한 것인데 중공은 오히려 이를 강력히 제창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중공은 일찍이 사유제를 소멸하고 공유제를 건립해 인민들이 이른바 ‘주인’의 마음가짐으로 노동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오히려 보편적으로 ‘출근은 하되 힘은 쓰지 않고, 일할 때 여지를 남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관에서는 또 해고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의 주인’이고 명예상으로 비할 바 없이 고상한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기 때문에 기관 책임자들도 그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 사람이 이러니 나머지 사람들도 잇따라 모방하여 전국적으로 이런 게으르고 탐욕스러우며 차지하려는 나쁜 풍조가 형성됐다. 공유제가 수많은 게으름뱅이를 배양해낸 것이다. 반면 당에 충성하고 당성이 모든 것보다 높으며 아부와 영합에 능하고 형식주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당 체계 내에서 가장 전도가 유망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런 방식과 상태에 대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인민들이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진영을 포기하고 사유제, 노사 쌍방향 선택제, 양로 보험제, 민선제 등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일부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중국이 부유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더 이상 표면적인 현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마도 사상 속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강은 더욱 당신들을 의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미련의 콤플렉스가 중공의 자기도취를 강화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사실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것이다. 단지 ‘공산당의 영도 견지’만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작풍을 보존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의 거대한 장애가 됐다.

공산당은 ‘자본론’을 붉은 보전(寶典)으로 받들고, ‘잉여가치’ 이론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비밀을 폭로했다고 여겼다. 그래서 착취제도를 보호하는 모든 제도를 소멸하고 낡은 세계를 박살 내어 새로운 세계를 세우려 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산계급 혁명 운동을 맹렬히 일으켜 1억 명 이상을 사망케 했고 파괴된 물질적 생산품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공산당이 사악한 이론과 억지 논리를 신봉하면서 인류의 재난은 이렇게 시작됐다.

‘문화혁명’ 이전까지 중국의 자본가는 이미 기본적으로 소멸됐고 중국에는 착취가 없었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전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어떠했는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심지어 수천만 명이 산채로 굶어 죽기도 했다. 이후 개혁개방을 하면서 민영기업이 많아졌고 착취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기이하지 않은가! 왜 착취가 없으면 가난해지고 착취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해지는가? 마르크스주의의 착취 이론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는 보편적으로 모두 빈곤한 반면 서방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매우 부유하

다는 이 사실들이 바로 마르크스와 공산당이 사람을 속인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다시 각도를 바꿔서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사람의 빈곤이 착취를 당해서 생긴 것인가? 공산당이 일으킨 무산계급 혁명 운동이 걸은 것은 정도(正道)인가?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의 관계는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관계,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서로 윈윈하는 상호 이익의 관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왜 그것을 착취와 피착취,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로 보았는가? 사람의 관념은 사실 사람의 경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산당은 왜 마르크스처럼 인격이 저급하고 증오로 가득 찬 자를 교주로 받들었는가? 공산당은 바로 그의 이 이론을 사용해 모두를 이끌어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여러분은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폭력 혁명을 써야만 해결할 수 있는가? 전통문화에서 중국인은 ‘화위귀(和爲貴, 화합을 귀하게 여김)’를 말한다! 그러나 폭력 혁명은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게 하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니 인류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의 잉여가치 이론은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폭력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간판이자 핑계일 뿐이다. 그것은 중공의 ‘계급투쟁’ 학설에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 세상의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억지 논리이자 사악한 이론일 뿐, 인류 사회 발전에 이로운 탁견이 결코 아니다.

중화문화가 어떻게 오독돼 ‘치세’를 위주로 변했는지 논함(1)

글/ 명간(明簡)

[명혜망] ‘진정한 중화문화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글은 중화문화가 회천(回天, 하늘로 돌아감)을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소개했다. 중화문화 중 치세(治世)에 관한 부분일지라도 사실은 회천을 근본으로 하며, ‘회천’에 의해 결정된 가치관, 시비 기준, 치국 이념 등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본문은 중화문화가 어떻게 ‘회천위본(回天爲本, 회천을 근본으로 함)’에서 출발해 오독(誤讀)으로 인해 ‘치세위본(治世爲本, 치세를 근본으로 함)’으로 변하게 됐는지 소개한다.

1. 당나라 이전의 중화문화는 ‘회천위본’이라는 본색을 유지했다

중국 문화의 발전은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백가쟁명이 출현하면서 역사 문화에 대한 대규모의 총결, 개척 및 전환점이 됐다. 그 후 한나라에 이르러 유학을 주도로 삼고 다른 제가백가를 포용하는 사회 문화 및 교육 모델이 확립됐다. 동한 시기 유학은 전성기를 맞았다. 이와 동시에 불교가 전래돼 번영의 길을 걸었다. 도가 역시 원래의 황로지학(黃老之學)을 기초로 도교를 창시해 점차 번영했다. 그래서 한당(漢唐) 시기에 유불도 세 가지가 서로 빛을 발하며 공동으로 지탱하는 구도가 점차 형성됐다. 당나라, 특히 정관(貞觀)과 개원(開元) 연간에 이르러 중화문화는 여러 문화를 포용해 기세가 웅장했으며, 만방이 조공을 바치러 오게 해 모두 중화를 본받을 으뜸으로 삼게 했다. 이는 중화문화의 정점이었다.

당나라 이전의 중화문화는 ‘회천위본’이라는 본색을 유지했다. 즉 당나라 이전에 중화문화는 회천을 근본으로 삼고 치세의 학문을 통솔한다[以回天爲本, 統帥治世之學]는 황제(黃帝) 시기에 확립된 문화적 입장을 온전히 계승했다.

2. 황제 시기에 확립된 문화적 입장은 회천을 근본으로 삼고 치세의 학문을 통솔하는 것

이 점은 ‘장자(莊子)’ 재유(在宥)편에 기록된 한 가지 이야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황제(黃帝)는 천자가 된 지 19년이 돼 천하를 호령하게 됐고, 이에 백관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공동산(崆峒山)으로 가서 광성자(廣成子)를 방문했다. 황제는 공손하게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극한 도[至道]에 통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지극한 도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천지의 정화를 취해 오곡의 생장을 돕고 민중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또한 천지 사이의 음양 두 기운을 관리해 각종 생명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얼마나 백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천자인가!

뜻밖에도 광성자는 황제에게 엄숙한 비판을 가했다. “당신이 묻고자 하는 것(지극한 도의 요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관리하고자 하는 것(천지의 정화, 음양의 두 기운)은 가장 말단의 것이요.” 즉, 당시의 문화 환경에서 황제는 득도한 선비들이 ‘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기에 광성자를 참배할 때 입으로는 도의 요체를 가장 중시했지만, 실질적인 사상 경지에서 진정으로 중시했던 것은 오히려 말단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었다.

광성자는 또 말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린 이후로 구름 기운이 아직 모이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초목이 아직 누렇게 변하기도 전

에 잎이 떨어지며, 해와 달의 빛은 갈수록 어둡고 침침해졌소. 게다가 똑똑하고 말 잘하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꿈틀거리게 됐소. 당신이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지극한 도를 알려줄 수 있겠소?” 광성자는 여기서 황제가 물질적 이익과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 백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이를 치국방침으로 삼아 자연환경과 사회 인심에 끼친 해악을 지적했다.

황제는 내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광성자를 떠난 뒤 천하를 관리하는 일을 내려놓고, 특별히 정실(靜室)을 하나 지어 바닥에 백모(白茅)를 깔고(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깔개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은 채 석 달 동안 재계한 후 다시 광성자의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갔다.

광성자는 머리를 남쪽으로 향한 채 자고 있었다. 황제는 바람이 부는 아래쪽을 택해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기어 광성자 근처까지 갔다. 광성자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는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여쭙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극한 도에 통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몸과 마음을 조절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까?” 광성자는 듣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 말했다. “잘 물었소! 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극한 도를 알려주겠소…”

‘장자’ 이 부분의 기록은 상고 시대 중화문화의 기본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태도는 오늘날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 적용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몸 밖의 물건이며, 물질적 향유는 아무리 풍부해도 욕망이 끝이 없고, 오직 몸과 마음의 안녕과 생명의 영원함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화문화에서 하늘로 돌아가고 수련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

히 하고 생명의 영원함에 도달하는 것이 만물이 풍성하고 민중이 넉넉해짐을 추구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다. 당연히 자기 자신의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다.

황제가 후세에 남긴 수련 문화와 치세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은 이러한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 황제가 남긴 치세의 학문 역시 이 가치관이 통솔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

3. 한당 시기 유학은 상고에 확립된 예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성정을 조절하는 문화적 입장을 계승했다

한당 시기의 유학은 황제 시기에 확립된 이러한 문화적 입장을 계승했다. 한당 유학은 전체적으로 장구지학(章句之學), 즉 공자(孔子)가 전한 각종 경전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들 중, 특히 ‘예기(禮記)’에서 상고 시대에 확립된 예악(禮樂)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성정을 조절하는 문화적 입장을 명확히 계승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禮)의 기원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예는 신의 계시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의 결합이다. 신이 인류에게 계시할 때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귀신[귀(鬼)는 조상이 세상을 떠난 후의 생명 상태를 가리키고, 신(神)은 더 높은 경지의 신기, 신명을 가리킴]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규범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각종 관계를 규정했다.

다음으로 예의 역할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예는 주로 신의 계시로 형성됐기에 주로 인류 생명의 표면적이고 낮은 층 부분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재적이고 높은 층 부분에 호응한다. 인간의 생명은 안팎과 겉과 속, 높고 낮음이 연결돼 여러 방면으로 함께 구성된 완전한 시스템이므로 사람은 ‘천지의 정신과 서로

왕래'할 수도 있고 식생활과 남녀의 번식 방식을 취할 필요도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의 큰 욕망이 존재한다'. 예는 사람의 심성과 생명 중 비교적 높은 부분을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악(樂)의 역할과 기원에 대해 말해야 한다. 만약 예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표면적인 부분이 억압돼 병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신, 상고 시대의 성스러운 왕은 인류에게 악을 창조해 줬다. 악은 사람의 각 층 생명 요소를 인도하고 표출하며 바르게 잡아 표면적인 감정과 생명 요소도 예와 배합되게 함으로써 일종의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생명 상태에 진입하게 할 수 있다. 악의 구성은 어떠한가? 상고 시대의 악은 음악뿐만 아니라 신체의 춤을 포함하며, 후대에는 이를 통틀어 악무(樂舞)라고 불렀다. 예와 악무가 서로 배합돼, 노래를 부르는 것과 악기의 반주 및 이끄심을 포함해 예악이라고 통칭한다.

그럼 요약하자면 예악은 왜 생겨났는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신이 인류 생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분을 이끌어 주는 동시에 인류가 생명 전체의 조화와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예악의 출현은 인류에 대한 신의 진정한 자비와 자애에서 비롯됐다. 만약 이러한 예악의 이끄림과 역할이 없이 인류를 완전히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람은 표면적인 생명 요소와 저급한 취미의 작용 아래 빠져 스스로 헤어 나오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인류의 도덕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람의 본질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은 신이 보기에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으며, 그렇게 되면 훼손되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예악의 역할은 생명의 혼란과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계속)



▲ 6월 27일, 댄 무이스 캐나다 국회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토론토 포시즌스 공연예술센터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하고 선원예술단에 표창을 수여했다. 의원은 말했다. “선원의 불굴의 의지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예술적 표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채, 음악, 오케스트라 모두 감탄을 자아냅니다.” 선원이 토론토로 돌아와 며칠 연속 만원을 이룬 것에 대해, 무이스 의원은 이것이 중국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캐나다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344만 3281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